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5 17. (화)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 (044-203-4080)	담 당 자	류종민 사무관(044-203-4089)

일본 주요 기업과 투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일본의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세*를 전환**하기 위해 스미토모화학, 도레이 등을 포함한 **일본의 주요 투자가를 만나 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 일본 對韓투자(신고,억불) : ('12) 45.4 → ('13) 26.9 → ('14) 24.9 → ('15) 16.7

2016년 일본 투자라운드 테이블 개최계획

○ 일자/장소 : '16.5.17.(화) 12:00~13:20 / 일본 오쿠라 호텔 등
○ 참석자 : 스미토모·도레이·쿠라레 등 대한투자 의향 보유기업 16개사

○ 이번 투자 라운드테이블은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 계기, 일본 주요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일본의 **대한투자 모멘텀을 형성하고,**

* 한일 경제인회의 : 1969년 발족 이래 매해 개최된 한일 경제인 협의체

-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다각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산업부는 이번 일본 투자라운드 테이블을 통하여 **총 8,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가 예상**되며,

○ 이번 투자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주장관은 이번 방문 계기,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붙임: 장관 모두말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류종민 사무관(044-203-40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참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모두발언 (투자 라운드테이블)

1 인사 말씀

일본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입니다.

우선 최근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일본 주요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이번 일본 방문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먼저 한일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50여년간의 양국간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양국간 경제는 물론
인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야시 모토오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새로운 경제협력 프레임하에서의
양국간 교역·투자 활성화, 에너지 분야 협력,
양국간 기업의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일 재계회의 참석 및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회의에 앞서
제게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일본 주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try of Trade,
try and Energy

한·일 투자협력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 양국 협력 성과 및 향후 과제

일본 기업인 여러분,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반세기년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양국 관계 전반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관계 증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 50여년간
300배 이상 증가하여
서로에게 세 번째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그동안
397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여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한 국가이며,
이러한 일본기업의 투자는 한국 산업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對韓 투자 누적액('15년 말, 억불) : 미국 624(24.2%), 일본 397억불(15.4%)

이러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은
동아시아 리더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협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일 양국, 나아가 한·중·일 3국의 협력 수준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 2위, 3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3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양자 혹은 3자간 경제협력 체계도
가동되고 있지 못합니다.

한·중·일 3국은 EU,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 비중은 EU, NAFTA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 역내 교역비중 : (한중일) 22%, (EU) 67%, (NAFTA) 40%

전 세계가 FTA를 통한 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중일 FTA는 아직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향후 한일 양국이 중심이 되어
정상들간에 합의한 대로
한중일 FTA와 RCEP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렵게 조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최근 위축되고 있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관계를 회복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최근 한일 교역현황(억불) : ('12)1,032 → ('13)947 → ('14)860 → ('15)715
  일본의 對韓투자액(억불, 신고) : ('12)45.4 → ('13)26.9 → ('14)24.9 → ('15)16.7

3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

try of Finds
try and Energy

일본 기업인 여러분!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전세계 5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 GDP의 75.1%에 해당하는 미국, EU,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ASEAN 등의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에 투자하면
이미 작년 12월 발효되어
2년차에 접어든 한중 FTA의 관세혜택과
48시간내 신속통관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금년중 시작되는 한중 FTA 투자·서비스 부문
2단계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되는
중국의 서비스시장에 보다 폭넓게 진출할 수 있고,
산업부-중국 질검총국간 비관세 장벽해소 노력의
성과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일본기업은 한중 FTA의
대표적으로 수혜품목인 고흡수성 수지 제조공장을
한국에 설립하여 한중 FTA 관세혜택을 활용해
중국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한국은 우수한 지재권 보호제도와 함께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적고
전력·통신·교통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기업을 경영하기에
매우 우수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스피드 경영'으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은
기업간 협력이 필수적인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감안할 때
한국이 가진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World Bank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 (Doing Business Index 2016)에서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올해에는 G20 국가중 1위이자
세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셋째로 한국 정부는 다양한
외국인 투자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try on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5-17 14:46:28

투자금액의 30%까지 현금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7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및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최대 50년간 임대료의 50~10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재팬클럽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총9건의 애로사항중
일본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를 포함한
6건을 즉시 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3 투자협력 분야

일본 기업인 여러분!

저는 이처럼 우수한 한국의 투자환경을
적극활용한 일본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면서
양국간 투자협력이 유망한 네가지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국이 서로 win-win하는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한일 양국은 유사한 산업구조로 인해
생산설비를 경쟁적으로 증설하고
가격인하를 포함한 과당 경쟁을 반복하여
서로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상처뿐인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이제는 기술개발과 같은 선의의 경쟁은 추구하되
산업내 분업을 확대시키는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의 밸류체인을 강화시켜 주는
서로가 win-win하는 구조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부가 화학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JX 에너지와 SK그룹, 미쓰비시 화학과 삼양그룹 등
양국 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는
합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JX 에너지 + SK : 파라 자일렌('14.10 준공), 윤활유('14.12 준공)

특히 미쓰비시와 삼양그룹간의 합작투자는
한국내 대중국 진출 전진기지인 새만금 지역에서
첨단제품을 생산하여 한중 FTA의 플랫폼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사업모델로
한중일 3국이 벨류체인으로 연결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 양국 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등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방의 시장점유율을 공략하는
제로섬 형태의 경쟁구조에서 벗어나,
서로의 강점과 비교 우위를 살려
경쟁을 뛰어 넘는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부품이 일본 자동차에,
최첨단 일본산 소재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공정에 채택되어
서로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한일 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성장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모두
기존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 을 통해
IoT, AI, 자율주행, 드론, 바이오의료 등을 포함한
신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한국 정부도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신소재,
신재생 에너지·에너지 효율관리·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지능형 로봇, 무인자동차를 포함한 ICT 융합산업 등을
5대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해
최대 7년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 목록을
5대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간
공동 R&D사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글로벌 융합 우수기술연구센터 육성(ATC) 사업 :'15년 46억원→'16년 70억원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5-17 14:46:28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
자본과 시장을 지닌 양국 기업들간 협력을 통한
역할 분담과 상호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수한 기술력과 핵심 역량을 갖추었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의 경우,
일본을 비롯하여 국내외 자본, 기술력과 결합하여
핵심 역량에 전열을 정비한다면,

* 일본 스미모토 화학과 삼성LED간 합작을 통해 SSLM를 설립('11년)하였으나 '13년 삼성 LED 지분을 전량 매입하고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라인 투자('15년 1.4억불)

다시 한 번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 한국에서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사업 분할, 합병, 매각 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강화된 세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어
여러분께 유망한 투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FTA 네트워크와 한류를 활용한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입니다.

그동안 양국이 화학, 전기전자, 소재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협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유통·물류, 관광·레저,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로 양국 투자 협력의 범위와 대상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와
최근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한류 붐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를 지닌 한국산 소비재와
일본 종합무역상사의 네트워크 및
마케팅 능력을 결합한다면,
일본 시장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께서 합의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기업간 투자 협력을 통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투자협력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본 종합상사의 정보력과 네트워크,
일본 상업은행의 파이낸싱 능력과
한국 기업의 시공 능력을 결합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try oil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5-17 14:46:28

아울러 제3국 공동 진출 분야를
스마트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으로
보다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는
양국 모두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유통망을 구축하기 힘든
소규모 기업들이 많아
양국 기업이 함께 해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IT 기반 의료정보시스템과
일본의 세계적인 의료장비 기업이 협력한다면
경쟁력 있는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5 맺음말

일본 기업인 여러분

일본 속담에

'오니니 카네보오, 토라니 츠바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 도깨비에 쇠방망이, 범에게 날개: 강자가 좋은 수단을 얻어서 무적이 된다는 뜻

한일 양국간 투자협력도
이 말처럼 각자가 가진 장점이
상대방을 만나 더욱 강해지는
win-win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IT 기기와 자동차는
일본의 우수한 소재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일본 기업은 한국 완제품 생산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요와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짧은 시간동안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룩하여 각각 세계경제의 강자로 등극하였습니다.

이제 양국이 투자협력을 통해 힘을 합한다면
각자가 가진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함께 선도해 나가는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5-17 14:46:28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일본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inist
Indus